

국힘 전대를 '당원투표 70%→100%' 개정...비윤계 폭발

비대위 속전속결 변경 의결

“의견수렴도 없이...” 당 안팎 반발

과반 득표자 없을때 결선투표

국민의힘이 일반 여론조사를 없애고 당원 투표만으로 당대표를 뽑는 차기 전당대회를 19일 확정하자, 비윤(비윤석열)계를 중심으로 당 안팎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현행 7대3(당원투표 70%·일반국민 여론조사 30%)인 당원·당규상 대표선출 규정을 '당원 투표 100%'로 바꾸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념과 철학 목표가 같은 당원들이 대표를 뽑는 것은 당연하다”며 “당원의 자발적 투표로 당 대표 선출이 가능하므로 비당원 여론조사를 병행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를 개정은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비대위 의결 바로 다음 날인 20일 삼일전국위원회회를 소집하고, 역시 규정상 최단기간인 사흘간의 공고일을 거쳐 오는 23일 전국위원회회를 열어 관련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복안이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내년 3월 초 전당대회를 가졌으면 지금 후보 등록부터 경선 과정을 50일도 잡고 1월 초에는 모두 준비해 후보 등록을 해야 한다”며 “그래서 이번 주에 불가피하게 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아직 두 번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지만, 전당대회를 개정은 사실상 확정 수순으로 관측된다. 이에 곧 잠재적 당권 주자들의 출사표가 잇따르고 당은 본격적인 전대 모드로 전환할 전망이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완전히 배제하는 방식의 당 대표 선출 규정으로 당이 민

심과 동떨어질 것이라 우려와 함께 사실상 진윤(진윤석열)계 대표 선출을 위한 물개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를 개정을 자신에 대한 ‘숙아내기’로 규정하고 가장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도 페이스북에 ‘輿, 끝대 옮겨 끝 놓으면 정정당당한가’라는 조선일보 사설을 올렸다.

역시 당권 도전을 선언한 윤상현 의원의 SNS에 “당원과 국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여야만 했는지 안타깝다”며 “아직 삼일전국위와 전국위 절차가 남아 있다.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란다”고 썼다.

비윤계로 꼽히는 김용 의원은 를 개정을 비판하며 ‘#승부조작 판치면 팬들은 떠나리’, ‘#유승민만은 절대안대 개게도 얘기하네’라는 해시태그를 올렸다.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은 CBS 라디오에 나와 “갑자기 이걸 바꾼다고 하니가 꾸준한 공론화 작업이나 노력이 있었다면 모를까 시기의 부적절성에 대한 설득이 있어야 된다”며 “이렇게 따가운 눈치를 보면서 바꿨는데 윤산이 선택한 사람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건가”라고 지적했다.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으면 1·2위 득표자가 다시 맞붙는 이른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도 진윤계 주자가 난립하는 현 상황에서 사실상의 후보 단일화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뒷말이 예상된다.

진윤계 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당 대표를 뽑는데 당 구성원들이 뽑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결과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는 것”이라며 를 개정을 지지했다. 김 의원은 유승민 전 의원을 겨냥해 “자기 일을 열심히 해서 득표하는 것이지 자꾸 상대방 선거전략에 대해서 알가알가하는 게 자신이 없다는 뜻 아니겠느냐”라고 언급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진석(맨 오른쪽)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할 때 당원 선거인단 투표 100%를 적용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예산안 협상 공전...법인세·경찰국 예산 팽팽한 대치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 회동 무산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19일에도 여야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팽팽한 대치를 이어갔다. 주말 내내 이어진 협상을 통해 상당수 쟁점에서 어느 정도 이견을 좁혔지만, ‘법인세 인하’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 양대 쟁점에서는 견해차가 여전하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요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불러 중재를 시도했으나, 박 원내대표가 불참하면서 결국 회동이 무산됐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장

은 ‘1·2개 문제 때문에 예산 전체가 홀딩(보류)돼 있는데, 적극적으로 양쪽이 다 받아들일 방법을 찾아 오는 중으로 합의의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며 “양쪽이 받아들일 방법이 뭔지 이른 시일 내 찾아보고 접촉해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협상에 충실하게 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남은 쟁점인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추가 양보를 얻어내려는 ‘압박 전략’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김 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수용한 만큼 이제 양보해야 하는 것은 정부·여당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박 원내대표가 의장 주재 회동에 불참한 것도 ‘여당이 실질적 제안은 내놓지 않은 채 언론플레이에만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협상을 장기간 공전시키는 주된 원인이 주 원내대표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에 있다는 시각도 배경에 깔려 있다.

이를 반영하듯,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회에서 “국민의힘이 김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면 바로 처리될 예산인데, 주말 내내 오매불망 윤심(尹心)에 막혀 또 헛바퀴만 돌았다”며 “집권당이 아니라 종속당, 국민의힘이 아니라 윤산의 힘”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민생이 어려운 시점에 내년 예산안 교착상태가 더 장기화하는 것은 여야 모두 부담인 만큼, 늦어도 이날 밤이나 20일까지는 김 의장의 중재 속에 합의점을 찾지 않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윤 대통령 지지율 41.1%...6월 이후 첫 40%대

리얼미터...긍정 평가 2.7%p 상승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6월 이후 처음으로 40%선을 넘어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러블 의뢰로 이달 12~16일(12월3주 차)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1.1%, 부정 평가는 56.8%로 각각 나타났다.

지난주보다 긍정 평가는 2.7%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2.0%p 하락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0%선을 넘어선 것은 6월5주 차(44.4%) 이후 24주 만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 7월 1주 차에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진 37.0%를 기록한 이후

내내 30%대 초반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11월 3주 차부터 완만한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이번 조사에서 긍정 평가의 경우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8.1%p ↑), 대전·세종·충청(7.1%p ↑), 대구·경북(6.7%p ↑)에서 상승했다.

연령별로는 20대(9.5%p ↑)·70대 이상(7.0%p ↑)·40대(6.5%p ↑)에서,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층(5.5%p ↑)·진보층(2.8%p ↑)에서 상승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1.5%p 내린 43.7%, 국민의힘은 2.7%p 오른 41.4%로 각각 집계됐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자동응답 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3%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尹정부 새해 개각 검토...이상민 장관 바뀔까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개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습하고 집권 2년차 개혁 드라이브를 통해 국정 동력을 높일 최적의 새신 시점을 고민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다음달 설 연휴(1월 20~24일)와 맞물려 있는 1월 중하순이 개각 시점으로 거론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신년 개각과 관련해 “언론에 설명할 내용이 아직 전무하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 등 시급한 현안에 집중해

야 할 때까지, 발화성이 큰 개각 이슈를 선불리 언급할 시점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윤석열 2기 내각 진용을 짜는 논의에 서서히 탄력이 붙는 분위기다. 인기 첫째 확립한 국정운영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며 과감한 개혁과제 이행에 나서야 할 때라는 점에서도.

이달 2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1월 말까지 한 달여 진행되는 신년 업무보고 일정까지 고려한 분석이다. 업무보고에는 18개 부와 4개 처, 4개 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는 서면

대체), 국제청 등 청 단위 일부 기관이 참여한다. 윤 대통령의 릴레이 정상외교 일정과 설 연휴 등을 고려하면 개각은 업무보고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안팎의 대체적인 예상이다.

‘이태원 참사’ 책임 문제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가 가장 주목받는 가운데 윤산 및 여의도 정가에서는 2~3개 부처 장관이 개각 대상이 아니냐는 말들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조만간 나올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 중간수사 결과 발표, 1월 7일 이후로 예상되는 국회 국정조사 결과 등을 살펴보면 개각의 폭과 시기를 조절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7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한번쯤 생각해보세요!

-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아프고 저리며 통증이 있다면... **허리디스크?**
-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다... **목디스크?**
-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무릎이 자주 붓는다면... **퇴행성 관절염?**
-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 어려워진다... **회전근개파열?**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더블저축은행 은행장 공개모집

Paragon | EG the 1

모집 부문	인원	근무지	지원자격 및 자격요건
더블저축은행 은행장	0명	광주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상법, 기타 법령 및 정관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금융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추고 라인그룹의 경영 이념과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자 · 리더십, 전문성, 대외 인지도 및 세명이 양호한 자 · 관련 자격증 소지자, 금융권 경력자, 공직자 우대 · 국가보훈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우대

구분	기간	비고
서류접수	2022. 12. 19(월) ~ 12. 30(금)	시간 및 장소는 개별 통보
서류합격자 발표	2023. 01. 10(화)	
면접진행	2023. 01. 13(금)	
면접합격자 발표	2023. 01. 20(금)	
출근 예정일	2023. 02. 01(수)	

■ 급여 : 회사 내규(면접 후 결정)

■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 2022년 12월 19일(월) ~ 12월 30일(금), 2주간
- 접수방법 : 라인건설 채용 홈페이지 접수(인재채용-채용공고-경기채용)

■ 제출서류

- 공모 지원서(온라인 접수) 1부 · 경력증명서(징계사실 포함) 1부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해당자는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전형일정은 당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직무에 따라 계열사로 채용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 02-3420-8041

Line Group

건설사	금융/투자	관광/레저	에너지	사회공헌
중앙건설산업 라인건설 라인산업 EG건설	더블저축은행 골드메이נס	중앙관광레저 THE PINESTONE	신안태양광발전소 신안풍력복합발전 중앙에너지	라인문화재단 라인장학재단